

「してもいい」문의 의미와 성립조건에 관한 고찰*

최 병 규**
(e-mail: bgchoi56@hanmail.net)

目次

- I 서론
 - II 유형별 분석
 - 1 화자의 태도
 - 2 실현 가능성
 - 3 불만·비난
 - III 결론
 - 참고문헌
-
-

I 서론

「してもいい」는 일반적으로 허가·허용 또는 당연의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여겨져 왔다. 지금까지 「してもいい」의 구성요소에 대한 효시적인 연구는 永野賢(1970)의 복합사론이다. 永野는 구체적인 표현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복합사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함으로써 이후 연구의 출발점을 제시하였다. 永野이후 奥田靖雄(1988)은 「してもいい」문의 성격을 「文の対象的な内容とモーダルな意味とのからみあい」로 규정하고 <술어의意志性>과 <동작주의 인칭>에 초점을 맞추어서 상세하게 분류하였으며, 森田良行(1989)는 종합적인 무드표현 체계 속에서 「してもいい」문의 의미용법에 관해서 상세한 분석을 행하였다. 高梨信及(1995)는 「してもいい」문의 핵심적인 의미를 「当該事態が容認

* 이 연구는 2014년도 단국대학교 대학연구비의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 단국대학교 외국어대학 일본어과 교수, 문법전공

出来るものであることを述べる」로 규정하고 <사태의 제어가능성> <행위자의 인칭>의 2가지 핵심요소의 조합에 따라 5가지 의미로 분류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본고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연구 성과의 기본 틀 위에서 구문적 조건에 초점을 맞추어서 어떤 상황 조건하에서의 의미 변화가 발생하는지를 심층 분석하는 것이다. 상대의 성격 즉 주체가 사람 또는 사물인지 여부와 특정인 또는 일반인여부 나아가서는 단수 또는 복수인지에도 주목하면서 각각의 경우 의미누앙스의 변화상황을 살펴보고, 필요에 따라서는 「してもいい」문이 취하는 동사의 성격에도 초점을 맞추어서 분석하기로 한다.

실제 문학작품을 살펴보면 「してもよかった」와 같이 과거문도 나타나고 있으므로 시제적인 조건이 의미성립에 어떤 영향을 초래하는지 등도 분석함으로써 「してもいい」문이 가지는 무드체계의 복합 표현으로서 가지는 다양성을 체계화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설명에 있어서 우선 비과거 종지형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과거형이나 추측형 등도 어느 의미 타입으로 분류되는지 분석하는 순서로 진행하기로 한다¹⁾.

II 유형별 분석

1 화자의 태도

(1) 허가를 나타내다 (주체가 2인칭의 경우)

(1a) 상대의 희망에 대한 화자의 허가를 나타내다

「~してもいい」는 동작 주체가 2인칭인 경우, <상대의 희망사항이나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허가 한다>고 하는 기본적인 의미를 가진다. 즉, 상대가 「~」로 표현되는 동작을 하는 것이 화자의 허용 범위라면 허용을 하는 것이다.

1) 「おいおい。もう電話を切りますよ」 「切ってもいいわ。じゃあ文ね。さよなら」 (永)

2) 「あたし? —荷物を取りに来たのよ」

「荷物は持って行ってもいいが、お前何処から這入って来たんだ」(痴)

그런데 「(私は)~してもいい?」에 대해서 「(君は)~してもいいよ」로 대답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용례가 없었다. 이것은 다음 예문에서 알 수 있듯이 일

1) 연체형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용례가 적을뿐더러 의미과약이 쉽지 않은 관계로 이번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상회화에서는 생략이 많으므로 「~しても」부분을 생략하고 「いい」만으로 허가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3) 「もつきつく抱いてもいいかい」 「いいわよ。私、重い—?」(あ)

지금까지는 상대의 희망사항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지만 문 속에 확실히 나타나지 않고 화자가 판단하여 허용하는 것도 상당히 많다.

4) 「あたし大丈夫、ただこうやって騒いでるだけよ、だから安心して寝てもいいわ」(痴)

5) 「姉さん、ラブレターもらったことある?」 「まあ、いやな人だ。貴方ももらったのね?」

「私の鞆の中に入っていたのよ。…読んでもいいわ。」(あ)

예4)와 5)는 화자가 상대방이 각각<寝ること>, <ラブレターを読むこと>을 원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허가를 한 것이다. 실제 대화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모습이나 태도 등을 보고 상대가 원하는 것을 판단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1a)타입 문의 의문문은 주체가 1인칭이며, 동작주체인 화자가 자신의 행동을 상대방에게 허가해줄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6) 「五月の連休に箱根へ行かないかって。箱根の若葉がとても綺麗なんだってね。行ってみたいわ。ねえ先生、行ってもいい?」(開)

7) 「志野田君、君の本当の腹の中を、当ててみようか。……言ってもいいかい」(人)

8) 「そうなんです。僕はうれしかったです。朝倉さん、僕、求婚してもいいですか」(充)

다음 표현은 「~してもいいか」 「~してもいいの」 「~してもいいでしょうか」 등의 의문형에 <ね>가 붙은 것이다. 예6)~8)보다 「~」 행동을 하고자 하는 기분이 강하고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대답 즉 반드시 허가해줄기를 바란다고 하는 강한 희망이 내포되어 있다.

9) 「俺もそしたら、番組がはじまる七時には起きてみてやるよ。お茶ぐらいわかせる。早起きで健康にいいよ」 「ほんと、ほんとなのね。じゃあ、引き受けてもいいのね」(二)

10) 「わたし、学校をやめてもいいでしょうね」(人)

(1b) 가정조건을 수반하는 경우

주체가 2인칭의 경우라도 문 속에 가정조건이 나타나면 의미가 (1a)타입과는 달라진다. 즉 「~」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을 때 <상대가 그 동작을 하는

것을 미리 허가를 해 두다> 는 의미가 되며 모두 화자의 허용범위에 속한다.

- 11) 「これ持っていらっしやい。おなかが空いたら何かおいしい物を食べてもいいわ」(人)
- 12) 「失礼だったらお怒りになってもよろしいが、御許下さい。」(愛)
- 13) 「いつか北海道にきたら寄りなよ。ダンナ連れてもいいよ」(結)

한편, <(1)허가를 나타내다>의 경우는 발화시점(현재)에서 화자의 면전에 있는 상대에 대한 허가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과거형이 성립하지 않는다.

(2) 의향(용의)를 나타내다 (주체가 1인칭의 경우)

주체가 1인칭 경우는 <상대가 희망하는 것, 상대입장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할 의향이 있음을 강조 한다>는 의미가 되지만 수반되는 조건이나 상대의 기분 등에 따라 의미나 뉘앙스가 달라지므로 5가지 타입으로 하위분류하기로 한다.

(2a) 상대방의 부탁에 응할 의향이 있음을 나타내다

(2a)의 의미는 뒤이어서 언급하는 (2b)와 함께 동작 주체가 1인칭 경우의 대표적인 의미라고 하겠다.

- 14) 「わたくしの考えてること、もう少しそっとして頂けません？そして、わたくしのお願いをすることを聞いてくださいな」「そりゃ、君の云う通りにしてもいい」(霧)
- 15) 「其処まで皆で散歩しなくて」「してもいいよ」(友)
- 16) 「元村貞子たちはとっくに引き上げてると思うんだが、これから訪ねていって見ないか」「新しい歴史の夜明けを談じ合おうっていつわけか。……行ってもいいな」(あ)

예14)~16)은 화자가 상대의 직접적인 의뢰나 권유에 대해서 응할 의향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는 의뢰하는 상대방이나 이에 응하는 화자입장에서 정도의 차는 있지만 원하는 행동일 것이다.

다음은 상대방의 의뢰에 대해 조건을 붙여 응하는 경우로 이때는 화자에게 유리한 조건인 경우에 한해 그렇게 할 의향이 있다고 하는 약간 소극적인 태도가 엿보인다.

- 17) 「あなた、きょうの演芸会、ご覧にならない?。」
「え、おもしろいものなら見てもいいけれども、落語やサラまわしじゃ……」(生)
- 18) 「うちへ寄っていただきと思って、走って来たんすわ」「君の家がここか。」
「ええ。」「日記を見せてくれるなら、寄ってもいいね。」

(2b) 가정조건을 수반하는 경우

(2a) 타입은 상대방으로부터 직접적인 의뢰나 권유가 있는 경우였지만 그것이 없어도 가정조건을 붙여서 상대가 원하는 행동을 할 의향이 있음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 19) 「日は？」 「来週の水曜日ー 午後からということになっているのだが、君の都合が悪けりゃ、月曜か金曜に繰り変えてもいい」
- 20) 「僕も、その青年教師の潔白を信じていますので、もっと資料がご必要だったら、現地から取り寄せてもいいんです。」(霧)

<君の都合が悪けりゃ>, <もっと資料がご必要だったら>라는 조건하에서 상대가 원하는 행동을 할 의향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가정조건이 명시되지 않아도 문맥 등에 의해 추측 가능한 경우도 있다.

- 21) しかし、大宮は杉子のことを知っていた。「その人なら僕の従妹と同じ学校にいる人だろう。どんな人が従妹の人に聞いて見てもいい。いい人だと思うが」(友)
- 22) 「今度の径子の事件では本当のことを検事に云ってくれ。その代わり、君の気持ちが済むようにどんなことでもする。そうだ、この地面に跪いて両手をついてもいい」(霧)

예21)에서는 <彼女がどんな人もっと知りたいなら>, 예22)는 <君が望むなら、君の気持ちが済むなら>라는 가정조건이 내포되어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 내용은 상대방으로부터 직접적인 의뢰나 요구가 없어도 「してもいい」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기분을 물어보는 결과가 된다.

결국 (2b)타입은 상대방 기분과의 연관성이 강하다는 점에서 (2a)타입과 가깝지만, 차이점은 상대방으로부터 직접적인 의뢰나 요구가 없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2c) 가정조건하에서 행동을 할 의향이 있음을 나타내다

가정조건 등이 있어도 상대의 기분과 연관이 없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가정조건하에서 그때 그 행동을 할 의향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기 자신과 관계가 있는 사항을 설명하는 것으로 화자입장에서 원하는 경우도 있으나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우선 가정조건이 나타나 있는 경우다.(一밑줄 친 부분)

- 23) 「しかし、弟がありますからね。わたしは弟をしあげてやってから、まあ、相当なもの

であったら、もらってもいいと思っていますが、今のうちは……」(生)

- 24) ある時、自分の執着さえなくなるなら、素直に別れてもいいが、今、この心持を殺し、別れるのはいかにも無理往生で、その気になれなかった。

예문은 대부분 확실한 가정조건을 수반하는 것이나 다음은 가정조건이 추측되는 경우이다.

- 25) 「K子から芥子をはったらどうかと云ってきたがね。親類にそれで助かった児があるんだ」「やって頂きましょうか」と自分は医者の方を見た。「余り長くやると火腫のようになって、あとで困ります」自分は少し位困ってもいいから充分にやって貰いたいと云った。(和)

이 경우는 <子供が助かるなら>조건이 숨겨져 있으며, 예23)는 원하는 행동, 예24), 25)는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할 의향이 있음을 나타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주체가 1인칭 복수의 경우다.

- 26) 「もし私も戦いに敗れたら、いっしょに東京にでも行って、二人で働いてもいいわ」
27) その芝居は二十三日の前にもう千秋楽になっていた。然し何処かにあるかも知れない。
若しい芝居が無ければ活動写真を見てもいいと話し合った。(和)

화자는 자신의 기분뿐만 아니고 상대의 기분까지 연관이 되므로 (2b)타입과 (2c)타입의 중간적 성격의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예27)은 두 사람에게 있어서 원하는 행동이므로 (2b)타입에 가깝고 예26)은 원하지 않는 행동이므로 (2c)타입에 가깝지만 결국 화자의 기분이 강한지 여부에 따라 의미타입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2d) 목적을 수반하는 경우

목적을 수반하는 경우, 그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 행동을 할 의향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때는 화자입장에서는 결코 원하지 않는 행동을 굳이 한다고 하는 <각오>의 심정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다.

- 28) 「いい加減な結婚ならしたくはない。結婚するからには誠実な気持ちで、一生の計画をもってしたい。そのためには僕の仕事を犠牲にしてもいいと思うくらいだ」(結)
29) 「他人に与える印象を否定してみたところで仕方がないわ。私、ともかくも、男にとって魅力のある存在でありたいわ。その代り同性から嫌われてもいいの……」(あ)

각각 앞의 문을 받아서 <そのためには>, <その代り>라고 하는 목적이 명시되어 있으며 목적 실현을 위해서 <仕事を犠牲にする>, <同性から嫌われる> 할 각오로 그렇게 할 의향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2e) 목적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2d)와 가까운 의미 중에서 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있다.

- 30) 「A氏は、妻に去られてから数年は、死んでも同然の日常を送っていた。つまり彼は妻を失ってはじめて妻に恋したわけで、私は、A氏のような男を記憶にとどめておいてもよいと思った。」(愛)
- 31) 「熱があるじゃないか」
「病気になってもいいの。病気になって死んだら、貴方も本望でしょう?」(痴)

이 경우 어떠한 이유를 수반하여 예를 들면, 예30)은 <こういう男を一人も知らないので>란 이유로 「~」 할 의향이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2d)타입과 마찬가지로 (2e)타입도 각오의 기분이 다소 내포되어 있는 것 같다.

한편, (2c)~(2e)타입에 걸쳐서 「死んでもいい」라는 예문이 많이 보인다.

- 32) 私は今、血が足りないので鉄剤を飲んでいる。実はこれを飲むには大変な決意が必要だった。何度決心しかけたか知れないのだが、翌日には、「やっぱりやめた、お茶飲めないぐらいなら死んでもいい」
- 33) 「神様、私の命を堀田さんに上げてもよろしいですから、どうかなおしてあげてください」
- 34) 「わしも長生きをした御蔭でこの通り今日の総会にも出席するし、宮殿下御声もきくし、もうこれで死んでもいい」(吾)

예32)는 <お茶飲めないぐらいなら>라는 가정조건을 수반하므로 (2c)타입, 예33)은 <堀田さんがなおるためには>로 추측되는 목적을 수반하므로 (2d)타입, 예34)는 <今日の総会にも出席し、宮殿下の御声もきいたので>라는 이유를 수반하므로 (2e)타입의 의미로 각각 분류된다. 이들 「死んでもいい」는 목숨과 관련이 있으므로 화자가 진짜로 그렇게 될 의향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다만 조건절의 내용이 화자입장에서는 중대하고 심각한 사태이므로 죽을 정도의 각오가 있음을 나타내며 따라서 (2c)~(2e)타입과는 뉘앙스가 조금 다르다고 하겠다.

이상, 주체가 1인칭인 「してもいい」문의 의미를 5가지 타입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나 실제로는 단순히 하나의 의미만을 가지는 경우는 드물며, 다음과 같

이 모든 의미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예문도 있다.

- 35) 「あたし、昔のことは忘れてしまって、これから後ただのお友達として、譲治さんと付き合いたいの。ねえ、いいでしょ?それならちっとも差支えないでしょ?」
「では友達になってもいいよ。脅迫されちゃたまらないから」(痴)

이것은 표현상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2e)타입의 의미로 분류되나 앞부분에 상대방에 대한 의뢰·권유로 여겨지는 문이 있으므로 (2a)타입의 의미로도 해석된다. 또, 문맥에서 가정조건이나 목적도 유추할 수 있으므로 (2b)~(2d)타입의 어느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경우에 해당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들 타입들은 서로 의미적으로 가까우며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다음은 과거형의 경우다.

- 36) 「僕が勝手に日を決めちゃって、君に無理に来てもらったみたいなんだけど、都合が悪かったのなら、日を替えてもよかったんだぜ。」
37) 「新婚のときは、妻を幸せにするために、多くの苦勞をしてもよかった。」(結)
38) あのときは、試験がなかったので、風邪をひいてもよかった。

이들은 순서적으로 (2b)~(2d)타입의 의미로 분류된다고 생각된다. 예36)은 화자가 지금 무리하게 왔다고 생각되는 상대방에게 <日を替えてもよかった>라고 말하고 있다고도, 또는 과거에 무리하게 온 상대방에 대해서 지금 <あのときは、日を替えてもよかった>라고 말하고 있다고도 해석된다. 어느 경우든지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과거에 있어서 행동을 할 의향이 있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예37)도 과거(신혼 때) 고생을 했는지 여부는 알 수가 없으며, 예38)도 <あのとき>로 표시되는 과거시점에 감기에 걸렸을 수도 걸리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들을 종합해 보면 「~してもよかった」 문은 과거시점에 있어서 화자가 「~」 행동을 할 의향이 있었다는 사실을 나타내지만, 가정조건을 수반하는 (2b),(2c)타입의 경우는 사실에 반하는(反事實的) 경우에만 과거형이 사용될 수 있으며, (2d),(2e)타입의 경우에는 「~」 행동이 사실이 된 경우나 그렇지 못한 경우 모두 과거형이 사용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2a)타입의 경우는 상대의 직접적인 의뢰나 권유에 대해서 화자가 그 자리에서 대답을 하는 것이므로 과거형은 성립되지 않는다.

(3) 사태를 받아들일 의향이 있음을 나타내다 (주체가 3인칭인 경우)

여기서는 1)사물이나 사건이 주체인 경우, 2)사람이 주체인 경우로 나누어 분석하기로 한다.

(3a) 사물이나 사건이 주체인 경우

「してもいい」의 주체가 사물이나 사건인 경우는 화자입장에서 별로 바람직하지 않거나 성가신 일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 39) 「そんなことしたら、また仕事が殖えるでしょうが」 「殖えてもよいわい。仕事を枝葉から枝葉へ殖やすのは、わしの生まれつきの性分じゃ。」
- 40) 「大人しくしていれば上げてあげるわ、だけども後で気が変になりやしなくて?」
「なってもいいよ、もうそんな事を構ってなんかいられないんだ」(痴)

예39),40)의 주체는 각각 <仕事>, <氣>로 <仕事が殖えること>, <気が変になること>는 화자입장에서는 바람직한 일이 아니지만 실령 발생하더라도 <상관없다, 괜찮다>라고 하는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3b) 사람이 주체인 경우

- 41) 大塚銃三は、概略のことが判ったので、この事件を放棄しようかと思った。放棄するもしないも、別に依頼者があったわけではなく、彼の自由だった。元来なら、一通りのことを調べて安心したのだから、それで捨ててもいいのである。(霧)
- 42) 特攻隊員が闇屋となり戦争未亡人が二夫につかえてもよい。(人)
- 43) 一定の刺激を与えさえすれば、必ず反応を呈するのに違いない。しかし刺戟は簡単である。じつと顔を見つめてもいい。あるいはまた指先にさわってもいい。

이들 주체의 「~」 행위는 일반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여겨지는 행동들이다. 화자는 그 바람직하지 못한 일을 주체가 행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허락한다고 기분을 가지며 주체가 특정인 또는 일반인의 경우라도 마찬가지로 하겠다. (3)의 의미에서는 조건을 수반하는 예문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가정조건이나 확정조건을 수반하더라도 그 조건하에서 화자가 주체의 「~」 행위를 수용할 의향이 있음을 나타낸다는 의미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따로 분류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다음은 과거형으로 우선 (3a)의 경우를 보면,

- 44) 大学時代はがむしゃらだった。ラグビーの試合のときに雨が降ってもよかった。
- 45) あのころ三つの番組を担当していたが他に仕事がふえてもよかった。

이들은 전후 문과의 관계에 따라 주체가 「~」 행위를 했다는 사실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나타낼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예44)는 계속해서 <そんな時は逆にもっと張り切ったものだ>와 같은 문이 이어지면 비가 왔다는 사실을, <幸いにそうなることはなかったが>와 같은 문이 오면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してもよかった」 문이 주체가 「~」 했다는 사실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사물이나 사태가 주체인 경우, 「~」 동사가 무의지 동사라는 사실과도 연관성이 있는 것 같다.

다음은 (3b)타입의 과거형의 경우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 46) 一夜にして首都の大半が消滅する空襲の叙述ののちに夢想したが、たしかにもっと人々は自暴自棄になり、もっと頹廢し、もっと絶望してもよかったのである。(人)
- 47) 牢獄にとじこめられていた者が出所して短刀をふりかざして権力者を血祭にあげてもよかったし、一朝にして教壇から説きかせる説教の内容を百八十度転換した教師を生徒が袋だたきにしてもよかった。(人)

우선 주체의 「~」 행위 실행여부를 살펴보면, 예46),47)은 실행하지 않았다고 여겨진다. 결국 3b) 사람이 주체인 경우 「~してもよかった」와 같은 과거형을 취하면, 화자나 생각주체는 과거에 주체가 사람들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행동을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주체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자신에게는 그것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었으며, 또 지금도 그런 태도라는 사실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2 실현 가능성 (주체가 1인칭이나 3인칭)

<1화자의 태도>에서는 주체의 「~」 행위가 화자의 허용범위에 속하는 경우를 살펴보았으나, 세상의 상식이나 규칙 습관, 법률 등에 의해 허용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존재한다.²⁾

<2실현 가능성>에서는 화자를 포함한 세상 사람들의 허용범위 안에 속하는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때는 <もう> <そろそろ>등 시간부사나, <少し> <くらい>등 정도부사, <など>등 강조부사, 사물 사건 양태 등을 지시하는 <こそあど>등이 한 개 또는 두 개 이상 동시에 나타나는 일이 많은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주체가 2인칭인 경우는 이 의미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주체가 1인칭인 경

2) 高梨는「外界的容認·可能」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高梨信及(1995)「シテモイ化シテイイ一条件接続形式による評価的複語表現②」宮島達夫·仁田義雄編『日本語類義表現の文法(上)単文編』p248

우와 3인칭인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하기로 한다.

(1) 주체가 1인칭인 경우

「~してもいい」로 세상의 상식이나 규칙·관습 등에 의해 허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행위는 <이상하지 않다, 비난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분을 나타내고 있다.

- 48) 「越さんは、ひとりもんかね？」 「うん、二十七になってるからもうそろそろもらってもいいんだがなあ」(二)
- 49) きょうはボーナスが出たんだから、このくらいのことはしてもいいだろうと、彼は思った。(生)
- 50) しかしある時期をこんなふうに過してもいいのではないかという気持もあった。(結)

예48)은 남자는 27살에 결혼한 사람이 많이 있으며, 따라서 결혼하는 것은 세상의 상식으로 판단할 때 정상적이라고 하는 화자의 판단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 예문에서 볼 때 주체의 「~」행위가 세상의 규칙이나 관습 범위 내에 있지만 화자가 판단컨대 그 확신도가 떨어지면 예49)의 추측형 <だろう>, 예50)처럼 <いいのではないか>의 표현이 사용되어 소극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일이 많게 된다고 생각된다. 예문을 보면, 1인칭의 경우는 <もう><そろそろ>등 시간 부사나 <少し><くらい>등 정도를 나타내는 단어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았다.

(2) 주체가 3인칭인 경우

(2a)특정인인 경우

우선 주체가 3인칭이고 특정인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 51) 「(専門医は) もう来てもいいんだがな」
- 52) 「あの子ももう世の中のことを知ってもいいと思うわ」

예51)은 <이 정도의 시간이 걸리면 대개의 의사는 온다>, 예52)는 <그녀와 같은 연령의 여자들도 세상일을 알고 있다>는 판단 하에 「~」행위는 실현가능성의 범위 내에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주체가 지금 「~」행위를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대해서 세상의 상식 등을 생각할 때 행하여도 이상하지 않다고 하는 화자의 기분이 작용하고 있다. 용례가 적은 관계로 충분한 분석은 할 수 없지만 공통적으로 <もう> <そろそろ> 와 같은 시간부사를 수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해둔다.

(2b) 일반인 또는 사물·사건인 경우

다음은 주체가 3인칭이지만 특정인이 아닌 일반인과 사물·사건인 경우는 공통점이 많이 나타나므로 양쪽을 같이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일반인이 주체인 경우다

- 53) 「ああいう人もいいな。やさしくて何でも聞いてくれて、電気に強い人が家の家系に一人ぐらいいてもいいんだ。」(結)
- 54) 「これはほほえましい風景でしょうか。そう思う人もあるでしょう。そういう人がいてもいいと思いますよ。しかし、私は嫌だな、そんなの。」(結)

이들은 동사는 모두 존재동사 <いる>가 사용되며 추측형은 없다는 게 특징이다. 주체위치에 나타나는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며 <こういう> <ああいう>처럼 예를 들거나 <一人ぐらい>와 같이 최소한의 기준이나 정도를 들면서 「いてもいい」로 표현하고 있다. 예53)은 화자입장에서 좋은 일이며 따라서 그러한 사람이 있어도 이상하지 않으며 그 기분이 발전하여 바람의 의미가 된다. 한편, 예54)는 화자입장에서는 싫은 일이지만 실제로는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있어도 어쩔 수 없다는 기분을 나타내고 있다. 양쪽 모두 실제로 세상에는 주체에 나타나는 사람이 많거나 적지 않으므로 세상의 허용 범위 또는 실현 가능성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다. 다음은 사물이나 사건이 주체인 경우이다.

- 55) 「時々、こうして、これから飯を食いに来るか」「賛成！」増子がはしゃいだ。
「お義父さま、月に一度はこういう家族サービス・デーがあってもよろしいわ」(二)
- 56) 「今年は軽井沢にも行けそうもないし、旅行もごちそうもフイになっちゃったけど、まあ、いいや、こういう夏休みがあってもいい」(二)
- 57) 人生のたった三ヶ月、それも年々寿命は伸びているのだ。その伸びたうちの三ヶ月間だ、いやいややる時期が一度くらいあってもいい。

이들은 존재를 나타내는 무의지 동사 <ある>가 사용되며, 추측형이 나타나지 않는다. 앞에서 설명한 주체가 사람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예시나 정도를 나타내는 단어와 같이 사용된다. 예55), 56)은 이미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예57)은 장래에 발생할 사건(화자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음)에 대해서 「あってもいい」로 표현한 것으로 그것이 이상하지 않다는 기분이 작용하고 있다. 예55)는 화자입장에서는 좋은 일로 이 경우는 <희망, 바람>에 가까운 의미가, 예56), 57)은 화자입장에서 나쁜 일이며 이 경우는 어쩔 수 없다는 <체념, 포기>의 기분이 담겨있다고 하겠다. 주체로 표현되는 사물이나 사건이 세상의 일반적인 일

이라 주체의 「~」행위는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보면 주체가 3인칭으로 일반인이나 사물, 사건의 경우는 많은 공통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주체는 수식어에 의해 수식받고 있으며 세상에는 그러한 주체가 적잖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주체가 「~」하는 것은 세상 상식의 허용범위나 실현가능성의 범위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과거형의 경우다. 이때는 단순한 과거사실을 나타내는 경우와 사실에 반하는(반사실적) 사태를 나타내는 경우 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과거시점에 있어서 주체가 「~」하는 것은 세상·사회 등의 허용범위 내에 속했다는 사실을 나타내지만, 후자의 경우(예58)의 경우는 주체가 「~」하지 않았던 사실에 대해서 유감이나 후회 혹은 비난과 같은 기분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예58)은 1인칭, 59)는 3인칭 주체이다.

58) あの横須賀工廠の恐るべき煤煙の肺の底まで吸いこみながら、永久に「それは犬である。」の講釈を繰り返して行ってもよかったのである。

59) 武家社会では、男と女に大きなひらきがあって、男は甲斐性次第で女あそびもつるされた、妾をもってもよかった。(い)

이들은 앞의 <2실현 가능성>범주의 의미 특징으로 언급한 <もう> <そろそろ> <少し> <くらい> <こうい><ああい> 등의 단어를 수반하지는 않지만, 예58)의 <永久に>, 예59)의 <武家社会では>등이 이들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1화자의 태도>나 <2실현 가능성>의 어느 타입으로도 확실히 분류되지 않는 것들이 있었다. <言ってもいい>, <思ってもいい>, <考えてもいい>등과 같이 언어활동이나 사고활동 동사가 사용되는 판단을 나타내는 문들이다. 이들은 반드시 「—を...と~してもいい」라는 형태로 사용되며 주체가 나타나지 않거나 확실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아마 회화체문에서는 상대방, 지문에서는 독자로 생각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지만 화자가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주체가 2인칭으로 여겨지는 경우는 <1화자의 태도>의 의미타입에 속하며 화자가 상대방이 「—を...と」라고 판단하는 것을 허락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주체가 1인칭 복수나 3인칭 일반인의 경우로 여겨지는 경우는 <2실현 가능성>의 의미타입으로 분류되며 우리들은(또는 사람은) 「—を...と」라고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어느 경우도 주체가 「~」행동하는 것은 화자나 화자를 포함한 일반인들이 허용하는 범위에 속하는 것이다.

- 60) 永久に親友であるためには、相互の友情に常に養分を与えなければならない。その養分とは、ひと口に言って、相互の励み合いである。競争心といってもよい。
- 61) 不浄論—おお、このセンチメンタル説法よ。不浄を清浄とみてもよい。(い)
- 62) 良人がやめることをすすめるようならば、この家庭をもっと持続させる意志がある証拠だし、勤めを続けろというようならば、別れる意志があるのだと思ってもいい。(人)
- 63) 長い間、男に従属させられていた日本の女の社会的な地位を示すものとかんがえてもいいだろう。(あ)

앞에서 이들은 반드시 「—を…と~してもいい」라는 형태를 취한다고 설명했으나 예(60), (62)와 같이 <—을>의 부분이 생략되는 경우도 있다. 또, 예(63)과 같이 추측형은 사용되지만 과거형은 나타날 수가 없는 것 같다.

3 불만·비난 (주체는 2인칭 또는 3인칭)

「してもいい」에는 화자의 의도에 반하는 현실에 대해서 유감, 불만, 비난의 기분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주체는 2인칭이나 3인칭이다. 우선 3인칭의 경우이다.

- 64) 遠くなければ賄いはここでしてもいいのに、そうすれば二重に収入があるのにと残念がったりした。
- 65) 「タクシーの拾えるところまで乗せてあげましょうか、ぐらいいってくれてもいいのにさ。日本の男がきかないんだから」(結)

이들의 특징은 문 말에 <~のに>를 수반하여 현실과 반대되는 사실에 대한 유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은 2인칭의 경우다.

- 66) 「あんなにお金が沢山あるのに、あたしに着物の一枚ぐらい拵えてくれてもいいと思うわ。」(痴)

이때는 <~してもいいのに>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화자 입장에서 바람직한 상태와는 상반되는 현실에 대한 불만의 기분을 나타내고 있다. 앞의 3인칭의 경우와 달리 2인칭의 경우는 그 기분이 직접 상대방에 전달되기를 노리고 있다고 하겠다.

주체가 3인칭의 경우에도 <~してもいいのに>를 사용하지 않아도 불만·비난의 기분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のだ> <~はずだ>와 같은 화자의 기분을 강하게 나타내는 단어를 수반한다.

- 67) 百姓がいなくて日本が立ち行くか！百姓さまさと奉ってくれてもいいんだ。
- 68) 父と子も争いが勘当の原因であったのならば、第三者であった母はもっとはっきりした説明をしてくれてもいい筈だった。(開)

예67)은 <주체가 백성들을 받들어 주지 않는 현실>, 68)은 <확실한 설명을 별로 해주지 않았던 현실 상황>에 대해 불만·비난을 하고 있다. 다음과 같이 <~でもいいではないか>형태를 취하는 경우도 있다.

- 69) それにしても課長さんは、娘にもっと、もの柔かに尋ねてくれてもいいではないか。(生)

이 <~でもいいではないか>문의 주체가 2인칭이면 상대방에 대해서 「~」행동을 실행하도록 촉구하는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하면 주체가 「~」행동을 하지 않고, 할 것 같지도 않은 현실에 대한 불만의 기분과 주체에 대해서 행동을 하도록 재촉하는 명령에 가까운 권유의 태도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 70) 「万一ゴタゴタが起こったときは、どうせ俺を相談に引張り込むつもりだろう。そんなら住所ぐらい教えてもいいじゃないか。」(永)
- 71) 「意味も何にもあるもんか」 「教えて下さってもいいじゃありませんか。あなたは余っ程私を馬鹿にしていらっやるのね」(吾)

<~でもいいでしょう>도 같은 역할을 한다.

- 72) 「いま新聞を読まなくてもいいじゃないの」
「読んだっていいじゃないか」 「わたしの話だって聞いてくれてもいいでしょう」(人)

Ⅲ 결론

「してもいい」문에 초점을 맞추어서 의미타입을 크게 <1 화자의 태도> <2 실현 가능성> <3 불만·비난>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경우를 성립시키는 구문적인 조건에 초점을 맞추어서 상세하게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분류를 가능케 한 배경에는 주체의 인칭이 바뀌면 그 의미나 뉘앙스가 반드시 바뀐다는 기존의 주장을 확인함과 동시에 같은 인칭이라도 특정인/일반인, 사물주어/사람주어인지 또 단수/복수인지 등 주체의 성격에 따라서 의미뉘앙스가 달라

진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가 있었다. 언어활동이나 사고활동 동사가 사용되는 판단을 나타내는 문들은 반드시 「—を…と～してもいい」라는 형태를 취하며 <1 화자의 태도> <2 실현 가능성>에도 속하지 않는 특이한 의미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해답을 찾을 수가 없었다. 결국 술어의 의지성 여부나 동사종류에 따른 요인에 의해서도 의미가 달라진다는 사실은 「してもいい」문이 가지는 무드표현으로서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한편, 기존 논문에서 그다지 다루어지지 않았던 「してもよかった」와 같은 과거문의 의미 및 성립여부를 분석한 결과 모든 경우에 과거문이 나타나지 않으며 이것은 화자의 기분 및 상대방과의 관련성이라고 하는 무드적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전체 무드표현 시스템 속에서 「してもいい」문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는 아직도 연구되어야 할 부분이 많지만 <허가·허용>이라고 하는 공통적이고 체계화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参考文献】

永野賢 (1970) 『伝達論にもとづく日本語文法の研究』東京堂出版
 奥田靖雄 (1988) 「文の意味的なタイプ」『教育国語』92
 森田良行・松木正恵 (1989) 『日本語表現文型—用例中心・複語辞の意味と用法—』アルク
 高梨信及 (1995) 「シテモイイとシテイイ—条件接続形式による評価的複語表現②—」宮島
 達夫・仁田義雄編『日本語類義表現の文法 (上) 単文編』
 遠藤直子 (2006) 「初級文型の硬直化」を防ぐために —～テモイイ文型を例として—『日
 本語文法』6

<용례출전>

石川達三 『開きすぎた扉』(開)	『充たされた生活』(充)	『人間の壁』(人)
森村桂 『二年目のふたり』(二)	『結婚志願』(結)	
志賀直哉 『友情』(友)	『和解』(和)	
石坂洋次郎 『青い山脈』(青)	『あいつと私』(あ)	
松本清張 『霧の旗』(霧)	山本有三 『生きとし生けるもの』(生)	
三島由起夫 『永すぎた春』(永)	谷崎潤一郎 『痴人の愛』(痴)	
夏目漱石 『吾輩は猫である』(吾)	高橋和巳 『人間にとって』(人)	
山口瞳 『結婚します』(す)	武者小路実篤 『愛と死(愛)』	
曾野綾子 『二十一歳の父』(父)	水上勉 『いまもむかしも愛別ばなし』(い)	

要 旨

「してもいい」文は、一般に許可・許容の意を表わす表現とされている。「してもいい」という一まとりの意味を、その行為状態の主体を人称ごとに分けて考え、どのような状況条件下でどのような意味を成すか、また、相手との関わりによってそのニュアンスが変わるのか、という観点から分析し、体系づけを試みた。

具体的には「してもいい」文を大きく<1話し手の態度><2実現の可能性><3不満・非難>とに下位分類し、それぞれの場合を成立させる構文的な条件に焦点をあわせて詳細な分析を行った。結論的にはこういう分類を可能にさせる背景には主体の人称が変わればその意味やニュアンスが必ず変わるという既存の主張を確認すると同時に同じ人称でも特定人/一般人、事物主体/人間主体それに単数/複数別によってもニュアンスが変わってくるのが分かった。また、言語活動や思考活動の動詞が使われる文は必ず「一を…と～してもいい」の構造を取ってあらわれ、意味的にも<1話し手の態度><2実現の可能性>のどちらにも属しない特異な意味構造を持っていることを確認したがその理由については分析出来なかった。結局、述語の意志性や動詞の種類といった要因によっても意味が変わってくることは「してもいい」文のもつムード表現としての性格をよく表わしていると言えるだろう。一方、既存の論文ではあまり取りあげられなかった「してもよかった」のような過去文についてもその成立と意味の分析を行った結果、すべての場合に過去文が成立しないということとそれは話し手の気持と相手との関わり方というムード的な要因と密接に結び付いていることが分かった。

最後に「してもいい」文についてはなお究明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点が多いが<許可・許容>という共通的かつ体系的な意味を持っていることを指摘しておきたい。

Key Words : してもいい、人称、許容・許可、時制、主体の性格、話し手の態度 (ムード)

투 고 : 2014. 5. 31
1차 심사 : 2014. 6. 14
2차 심사 : 2014. 7. 5